

소비생활의 변화

허 경 옥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부교수)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가족생활 및 소비생활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연구는 아주 시기 적절하며 중요한 연구임에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소비 가능 시간이 증가하며 동시에 여가와 관련한 소비가 증가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이 연구결과에 동의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외식, 여행, 쇼핑과 관련한 시간 사용 및 문화 분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더 많은 여가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 질 수도 있다.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이 같은 영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 5일제 근무가 가사노동분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편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가정에서의 역할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사노동분담이 근본적으로 시간의 문제라기 보다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 사회문화, 생활양식의 변화에 기인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어쩌면, 토요일에 남편들이 집에 있으면 부인들은 점심을 해 주어야 하는 걱정을 더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있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적으로 가족생활에 바람직하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회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근로자의 과로 및 만성적 피로, 스트레스 가중, 가족생활의 폐해, 자기 개발의 상실, 산업재해 증가, 노동의 효율성 저하 등을 억제하는 것에 있으므로 무분별한 소비, 사치성 여가 소비, TV만 본다 듣는 부적절한 시간사용은 지양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 5일제 근무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분위기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언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점차 창의성을 요구하는 지식기반형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근로자들도 자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는 토요일이나 저녁시간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증가된 여가의 주요 내용(표4-4)이 가족과 함께 하기(외식, 쇼핑), 휴식이나 TV 보기 등에 치우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영화, 연극, 각종 음악회나 공연 등에 시간을 할애 할 수도 있고 보다 수준 높은 여가활동을 준비하며, 재생산적 소비,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사회봉사, 노인이나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여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나 여가 등 선진국 형으로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 5일제 근무가 핵가족 간의 공유시간은 증가하나 친척이나 부모 등과의 시간이 증가되지 않아 노인계층의 소외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 소득계층별 주 5일제 근무가 가족생활 및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필요성, 가정내 노동분담과 관련한 잇슈제기 등에 매우 공감한다. 결국, 생산적인 여가활동 및 소비생활,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자기 계발을 위한 전략, 바람직한 가족생활 및 가족문화 정착, 여가생활의 질적 측면과 관련한 후속적인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함을 알려 주고 있다.

한편, 최근 주 5일제 근무는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호황을 누릴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적절한 가족생활 및 소비생활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충분치 않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말농장, 주말주택이나 평상시에는 주인이 이용하고 피서철이나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여행자들에게 임대해 주어 수입을 얻는 팬션 등 레저부동산을 부동산 재테크로 유도하는 전략이 유행하고 있다. 여행업체에서는 사람들의 때가 묻지 않은 오지 탐사, 야생

이나 조류 탐사 등 모험을 만끽하게 해 주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천연염색이나 도자기 굽기 등 체험여행을 제공하는 상품, 무인도 여행상품 등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유통업체들이 남성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와 기업 환경의 변화, 변화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개인 근로자나 가족단위의 적절한 대응 및 변화에 대한 연구·조사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